

이 책에서는 ‘학습’이 무엇인지,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개념들이 어떻게 ‘수능 국어’와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더불어 ‘수능 국어’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을 제시할 것입니다.

단언컨데 이 책은 여태 시중에 나온 수능 국어에 관한 서적 중에서 제일 파격적이고 진보적입니다. 여기에는 집필자들이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발전하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담겨있습니다. 집필진들이 여기까지 뚫아온 지식의 최전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술자는 학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서서, 여러분 옆에서 말을 건네듯이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한정된 시간안에 시험을 친다는 기분으로, 현실적인 수준의 합리적인 풀이를 시도할 것입니다.

‘잠룡물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잠겨있는 용은 아직 쓸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나의 실력과 잠재력을 보여주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옆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용을 끌어내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 책을 끝마칠 때쯤이면, 여러분 속의 용은 꿈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게 여러분의 용과 여러분이 쌓아올린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목차(상)

0부 수국비는 무슨 책임가 -- 1

전쟁사 이야기 1편 -- 9

1부 나도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 -- 15

1-1부 학습이란 무엇인가?

1-2부 시넵스와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 21

전쟁사 이야기 2편 -- 32

1-3부 공부를 관찰해보자 -- 37

전쟁사 이야기 3편 -- 54

2부 수국비 기초 -- 61

2-1부 수능 국어 총론, 국어에 대한 이론적 해설

총론 1편 여러분의 슬픈 자화상

총론 2편 수능 국어란 무엇인가 -- 68

총론 3편 우리가 앞으로 할 일 -- 94

전쟁사 이야기 4편 -- 107

2-2부 문단별로 읽고 핵심찾기 -- 113

1편 13년 수능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14년 수능 A형 분광분석법

2편 16년 9월 A형 산패, 15년 B형 맹자의 의 사상 -- 123

3편 16년 9평 B형 사색적 삶, 08년 9평 총체적 인식 -- 132

4편 18년 9평 양자컴퓨터 -- 145

- 5편 15년 수능 B형 신재호 -- 156
- 6편 19년 6평 최한기의 인체관 -- 168
- 7편 13년 9평 B형 각운동량 보존 -- 179
- 8편 17년 6평 인공신경망 -- 184
- 9편 19년 6평 사법 우선적용 -- 194
- 10편 09년 수능 동영상 압축 -- 199

전쟁사 이야기 5편 -- 204

2-3부 통지문으로 길게 읽고 주제 찾기 -- 210

- 1편 17년 수능 공정한 보험
- 2편 16년 9평 A형 소비자정책 -- 224
- 3편 17년 9평 콘크리트 발전사 -- 234
- 4편 16년 9월 A형 해시 함수와 보안 -- 253
- 5편 11년 수능 부활절 지키기 -- 269
- 6편 19년 수능 질점부피 문제 -- 278
- 7편 17년 수능 반추동물의 생존 -- 291
- 8편 17년 9평 칼로릭 논쟁 -- 303
- 9편 17년 수능 콰인과 포퍼 -- 313
- 10편 18년 수능 디지털 부호화 -- 328
- 11편 17년 6평 음악의 아름다움 -- 340
- 12편 07년 수능 대중매체 비판 -- 344
- 13편 11년 9평 한계비용 -- 353
- 14편 17년 6평 동물실험 예비추론 -- 364
- 15편 13년 6평 민주주의 -- 374

전쟁사 이야기 6편 -- 385

2-4부 실제 수험생 사례 -- 390

전쟁사 이야기 7편 -- 395

0부 수국비는 무슨 책인가

수국비는 아래와 같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 수능 비문학 지문을 읽고도 문제를 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다시 지문을 올라가야 하는 학생
- ◎ 어렵고 복잡한 용어때문에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힘든 학생
- ◎ 국어 성적이 들쭉날쭉하고 풀이에 일관성없이 그때그때 문제 풀이가 달라지는 학생
- ◎ 글을 읽는 방법이 대체 뭘지 모르는 학생
- ◎ 공부를 하고 기출을 풀어도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학생

수국비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실전을 가르쳐줍니다

수국비에서는 시험장에 같이 앉은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설합니다. 길고 난잡하며 현학적인 풀이는 절대로 실전에서 쓸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짧고 효율적인 풀이입니다.

수국비에서는 최대한 적은 시간을 사용하여 지문을 읽고, 문제의 정답에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수국비가 제시하는 풀이와 설명을 몇번만 반복해도 여러분은 당장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수국비는 기출문제를 통해 근본적인 독해력을 신장하는 연습을 합니다

본 서적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력을 고려합니다. 왜 지문에서 해당 부분을 주제로 생각했는지, 그 주제가 어떻게 문제와 연결되는지, 어떤 선지부터 보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연습을 시킵니다.

사고력과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국비에서는 친절하게 기초부터 숙련된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사고 과정을 해설합니다.

수국비는 수능 국어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수능 비문학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시중에는 수능 비문학을 대비하기 위한 상식과 배경지식을 주입하는 서적이 있지만, 수국비는 배경지식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 비문학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없이 순수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수능 출제의 의도를 바탕으로 수국비는 이에 가장 합당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수국비는 어떤 해설지에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약속합니다

만약 본 서적이 여타 다른 국어 문제집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면 애초에 펜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대단히 기본적인 국어에 관한 해설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시판되는 아무 기출문제집을 구매하면 됩니다. 본 서적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사고과정과 설명을 제공합니다.

수국비는 학습, 효율,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다른 과목의 공부에도 도움을 줍니다

필자 또한 삼수까지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공부가 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같은 문제를 전혀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풀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제 풀 때는 이 방법을 쓰고, 오늘 풀 때는 저 방법을 쓰면 안됩니다. 같은 문

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은 방식과 사고를 해야합니다. 수국비에서는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우며, 이 내용은 수학, 과학, 영어같은 다른 과목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국비는 수능 학습서의 고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전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근본적인 지혜를 가르치기에 널리 읽힙니다.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세계에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고전을 읽은 사람들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도 더 쉽게 적응하고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국비는 기출이 추가되고 새로운 제재가 등장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로 남고 싶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출을 세세하게 해설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할지를 근본적으로 설명합니다.

수국비는 단순히 기술, 인문 등의 제재로 유형을 나누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는 총 8가지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예컨데 주장과 쟁점의 경우 인문 주제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과학계의 논쟁과 토론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문과 과학으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인문지문이라고 해서 같은 읽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재는 단지 겉껍질에 불과하며, 다른 제재라 하더라도 같은 구조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수국비는 무슨 평가를 받았는가

수국비는 이미 오르비에서 공개되어왔으며, 학생들의 평가와 반응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습니다. 필자 또한 스스로의 콘텐츠에 자신할 수 없었지만, 학생들의 평가를 들어본 결과 제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집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지금 수국과학 칼럼을 계속 읽다가 몇시간째 보고있네요... 궁금한게 정말 신기하면서도 핵심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는게 느껴졌는데.. 이게 기출 모든지문 다 적용 가능한가요..?"

지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다른칼럼들 까지 다 정독 중입니다.. 망치로 머릴 때려박은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단락이 주제를 암시하는 특정 표현을 다음 칼럼때 한번 정리해주시면 안될까요?: 예를들어 문제 상황일 경우 이게 그단락의 중심문장

인 것처럼. 또 첫단락에서 '목적'을 위한 글이면 그게 중심 주제인것 처럼..너무 칼럼들이 하나하나 진국이네요

계속 비문학에대한 고찰을 위해 각 인강사의 1,2,3타 까지 섭렵하면서 방법론을 모두 배우고 또 배워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와중에 오르비 칼럼을 보면서 선생님의 칼럼을 오늘 아침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5시간에 걸쳐서 정독했습니다.

선생님의 칼럼을 통해 의구심은 해소되었으며 실제로 지금 비문학 4지문을 풀었는데 이제껏 1나틀렸네요...거즘 매지문마다 1문제 2문제는 틀렸는데..총 거즘 12문제중 1나 틀렸어요....오히려 독해속도는 더빨라지고요...이런게 처음이네요...수많은 인강과 방법론을 배웠지만...이게 진짜 정답이네요...휴 물론 지엽적인 문제들은 좀 고민되긴하는데...너무 감사합니다. "

" 얼마전에 이xx 선생님 커리를 탔어요.

근데 이걸 도식화만으로는 좀 애매하다 생각해서 글좀 찾아보다보니

주제찾고 목적찾는 게 도식화보다 훨씬 우선되는 게 맞더라구요

님 글이 정말 도움이됐어요 "

" 올해 사수생으로 시험을 치르게된 학생입니다유학공부로 수능을 아예 공부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처음 수능을 보고 올해 두번째로 시험을 봅니다수능이 15일 정도 남았는데 때가 때이다보니 효율에 대한 글을 검색해보다가 선생님의 수국과학 칼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충격이어서 다른 칼럼도 정독해서 봤습니다

역시 다른 칼럼들로부터도 대단히 감명받았습니다제 국어성적은 작년 처음 공부시작했을 때 5등급에서 인강뽕뽕이 돌리고 수능에서 운이 좋아 3등급이 나왔습니다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를 대하는 알고리즘을 세운적 없이 다 읽어서 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작년 수능에서 비문학 2지문 썬으로 못 읽고 못풀었는데 어떻게 잘 찍었는지..

올해는 그냥 양으로 읽고 읽고 읽었더니 안정적으로 3등급은 뜨는데 영두서가 없어서 마지막에 국어로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수국칼럼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오늘....물론 선생님께서는 체화할 시간이 충분한 고2애기들부터 따라하기를 권장한다고 하셨지만지금 지문 2개를 날릴까 말까하는 저에게겐 이미 (알려진)정석으로(끝까지 읽고 이해해서 풀려고하는 노력들) 수능을 보는것은 이미 도박입니다....

그런데 수국과학칼럼을 읽고 아! 이 분은 찌이다!진정한 평가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분이 아닐까 하고 감탄하며 직접 문제를 풀어봤습니다처음에 양자역학과 비고전논리를 풀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6문제 중 3문제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쌤이 말씀하신 칼럼 내용 중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보완가능한게 2가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여차저차 생각해서 임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서 보완했습니다 : (A와 B가 서로 반대될 때)///A에서 (B 내용 블라블라)는 (부정적인 내용): B를 부정했으므로=> 이면 맞는 말이다로 세웠는데 일단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푼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의의 이고 4문제 다 맞았습니다이 지문에서는 어디가 핵심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뭘 반박했
다의 구조라 이 내용을 다 밑줄 치기에는 핵심이 아닌 듯해서 크게 크게 보려
고 했습니다각 문단별로 무조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한 것도 아니며 아리스
토텔레스가 반박된 것도 아닌게 보여서 이렇게 했습니다2문단의 경우 문단 옆에 세
모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반박한 3명 이름에 동그라미만 치고 공통적으로 반박 정
리한거에 밑줄치고 다시 그거에 차이를 둔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약식 ps구조로(문제
해결구조가 아니지만 다른건 배운적이 없어서 저만 문제풀 때 알아보게 살짝
표시해두었습니다) 썼습니다

3문단은 2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반박한 애들을 반박했으니 문단 옆에 동그라미
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반박아니니까 긍정이라고 통침)그리고 사람이름에 동그라
미 치고 넘어갔습니다 뭐가 뭐 세부하게 주장했는지를 읽은지 기억도 안나게 넘
어갔어요와 제가 두지문밖에 안풀어봤지만 이렇게 정답도가 높았던 적이 처음
인 것 같아요저도 시간내서 모의고사 2시간 내서 풀어서 100점 맞은 적있는데
그건 타임아웃이잖아요

ㅠ진짜 선생님 저 흑시... 이 방법으로 남은 기간 공부해보고 싶은데 칼럼 한
번에 끝까지 볼 수 없는 것일까요...?책을 내신다 하셨으니 책값내고 미리 칼
럼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정말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 "

이 내용들은 오르비에서 수국비(과거 수국과학) 칼럼을 오르비에 올리고 메세
지를 받은 것들인데, 이것을 보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하며 글
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쉬어가기) 전쟁사 이야기 1편 - 훈련과 숙련도

저는 공부를 하는 것이나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 것, 혹은 프로그래머들이 게임 연습을 하는 것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오늘도 수십 문제에 달하는 양의 문제지를 풀었을 것이며, 자신이 오늘 또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에 꼼꼼히 기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수능을 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비슷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숙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태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몇 회나 풀었었는지 기억조차 제대로 나질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또한 수험생들과 비슷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처음 해당 종목을 배울 때부터 끊임없이 기초 자세를 잡는 훈련을 받습니다. 골프선수들은 제대로 된 스윙 자세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골프채를 좌우로 휘두르는 연습을 수백 번씩 합니다. 이런 기본자세를 제대로 잡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주 지루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시간에 걸쳐 반복하여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탁구선수들은 처음 탁구를 입문할 때 기본적으로 채를 잡고 공을 치는 자세를 연습합니다. 골프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초에 해당하는 훈련을 오랜 기간 수도 없이 반복하여 탄탄한 기본기를 다집니다.

저는 공부나 게임, 운동을 모두 끊임없는 반복 훈련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4편 - 18년 9평 양자컴퓨터

고전 역학과 현대의 불확정성 원리를 활용한 지문이 여태 꽤 출제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물리1을 공부하고도, 이과인 저도 양자역학과 관련한 지문은 참 난이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미리 알고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주제가 나와도, 우리는 국어 시험을 치는만큼 국어의 본질적 속성에 충실하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문단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세요.

고전 역학에 ㉠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이라는 2가지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이 둘은 서로 동등하게 중요할까, 아니면 어느 한 쪽이 더 중요할까.

단순히 맨 앞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서 고전 역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안다고 하죠. 표현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앞에서 열심히 고전 역학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해당 문장을 보면 '하지만'을 쓰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해당 문단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참 예뻐. 하지만 성격이 괴팍해"라고 말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걸 칭찬으로 봅니까 욕으로 봅니까? 앞에서 제시된 정보보다 뒤에서 제시된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격이 괴팍한데 예뻐서 뭐하냐' 수준의 비꼼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전후맥락 없이는 이렇게 단정짓기는 힘들고, 일단 해당 문장을 보면

뒷 부분이 더 중요하고, 전후 맥락을 살피면 확신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길 바랍니다.

양자 역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곧장 다음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앞서 찾은 '양자 역학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이 또다시 나온다. 이후 지문은 '고전 역학'보다도 '양자 역학'에 초점이 맞춰져 설명이 진행됩니다.

곧장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꽤 어려워보이는 <보기> 문제이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함께 찾은 핵심을 활용해서 힌트를 드릴테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 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문제를 보기가 식겁하겠죠? <보기> 지문도 정말 길게 나왔고, 선지 내용들도 하나같이 뭔가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보기>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느냐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기>가 나오면 거기에 꽂혀서 지문 내용은 내팽겨치고 그곳에만 시야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기>문제도 결국 지문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보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국어 시험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수험생의 수학적 사고력과 지식 측정은 수능 수학이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국어에서 수학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온갖 수학적 도구를 동원해서 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온갖 식을 세워서 어떻게든 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으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선지를 훑어보세요. 굳이 모든 선지를 바로 판별하고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캔하듯이 쭉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훑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양자 역학에서 읽었던 내용이 보일겁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말만 가지고 답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선지를 보면 익숙한 친구가 눈에 거슬립니다.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이 두 선지는 언뜻 보기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아까

양자 역학과 관련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존을 하고 있다, 공존을 이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지문에서 양자 역학이 중요하며, 양자 역학에서는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핵심과 관계된 선지가 보이면, 그것부터 먼저 주목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해당 문제의 정답은 이 두 선지 중에서 나왔습니다. 출제자는 우리같은 학생이 기특한겁니다. "너는 국어의 본질에 충실했구나! 그러니까 정답을 좀 쉽게 줄게!"라고 출제진이 힌트를 준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당 지문의 또다른 문제를 가져와서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기>나 선지 구체적인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쪽 보세요.